

영혼의 지도: 페르조나

우리의 많은 얼굴들
MAP OF THE SOUL: PERSONA
OUR MANY FACES
A Guide
Korean edition

머리 스타인
/ 레너드 크루즈, 스티븐 부저
우종태, 조자현 역

 CHIRON PUBLICATIONS • ASHEVILLE, N.C.

방탄 소년단
To BTS

© 2020 by Chiron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Chiron Publications, P.O. Box 19690, Asheville, N.C. 28815-1690.

© 2020 by Chiron Publications. 판권 소유.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복제 할 수 없습니다.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전자적, 기계적, 복사, 녹음 또는 기타 출판사 Chiron의 사전 서면 허가 간행물, P.O. 박스 19690, 애쉬 빌, N.C. 28815-1690.

www.ChironPublications.com

Interior design by Danijela Mijailovic

Cover design by Claudia Sperl

Printed primari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anijela Mijailovic의 인테리어 디자인

Claudia Sperl의 표지 디자인

주로 미국에서 인쇄됩니다.

ISBN 978-1-63051-808-0 paperback

ISBN 978-1-63051-809-7 hardcover

ISBN 978-1-63051-722-9 electronic

ISBN 978-1-63051-811-0 limited edition paperback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Pending

BTS ARMY 인 카를라(Carla)와
새로운 세대에게
용 심리학을 전해준
BTS 에게 특별한 감사를 보내며..

표지 그림: 20 세기 가장 유명한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모든 고양이들은 세가지 이름을 가진다고 했다. 모든 이가 아는 이름, 고양이의 아주 친한 친구와 가족이 아는 이름, 그리고 고양이 자신만이 아는 이름이 그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도 세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대중적인 페르조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이 아는 이름-개인적인 페르조나,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이름, 즉 가장 깊은 자기라는 세가지 이름이다. 많은 이들이 첫번째 이름은 알고, 일부는 두번째 이름도 안다. 당신은 비밀스러운, 당신의 개별적이고 단일한, 유일무이한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 불리기 전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당신이 절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를 알고 있는가?

저자 소개: 머리 스타인 Murray Stein

취리히 국제분석심리학교 the International School of Analytical Psychology Zurich (ISAP-ZURICH) 의 교육, 지도 분석가이자, 시카고 융분석가협회 (1980) 와 The Inter-Regional Society of Jungian Analysts (1977)의 창립 멤버이다. 국제분석심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IAAP)의 회장을 2001 년부터 2004 년까지 맡았으며, 국제분석심리학교 ISAP-ZURICH 의 교장으로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가르쳤다. 세계 곳곳에서 강의하고, 기독교와 중년, 융심리학에 관한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다. 현재 스위스에서 살면서 취리히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역자소개

우종태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학술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일본 교토문교대학 임상심리학 교수로 모래놀이와 분석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조자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 정신과전공의를 마
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취리히 국제분석심리학교 ISAP-ZURICH 를 졸업하고 국제분
석심리학회 정회원과 융학파 분석가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드림수면의원에서 융 분석과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목 차

저자 서문	5
한국어판 서문	8
역자서문	12
BTS 의 “영혼의 지도: 페르조나”	
앨범의 가사에 대한 주석	14
편집자의 영혼의 지도 안내	37
제 1 장: 생각의 발단	60
제 2 장: 페르조나 Persona	62
제 3 장: 그림자 Shadow	70
제 4 장: 자아 Ego	77
제 5 장: 자아, 정신 생활의 육분의	84
제 6 장: 지도, 지각, 그리고 통각	88
제 7 장: 돌파와 중년	92
제 8 장: 기호와 상징	103
제 9 장: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름, 당신 자신	107
제 10 장: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112
제 11 장: 개성화: 자신의 길을 찾아서	115
제 12 장: 콤플렉스 Complexes	118
제 13 장: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의 이름을 알라, 자신을 말하라	122
후기	129
각주	134

서문



Persona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젊은이들에게 페르조나 역할을 부여하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맞추어 살도록 요구한다. 페르조나를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페르조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원하는 상징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일생 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왕자나 거지라면, 그 사람은 그러한 페르조나 안에 머무르게 된다. 페르조나는 사람을 일정한 사회적 카테고리(남자나 여자, 귀족이나 평민, 형/누나 혹은 동생)에 위치시킨다. 오늘날에는 페르조나 형성이 훨씬 더 개별화되었고, 그만큼 도전적이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필요성에 맞고 현재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페르조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게다가, 필요성이 바뀌고 인격이 성숙해 감에 따라, 페르조나도 거기에 부응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현대 세계에서 페르조나를 관리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부담이 크고 복잡한 일이다.

6 map of the soul persona

페르조나는 일종의 가면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고 느끼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페르조나는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옷이나 헤어스타일, 보석이나 문신, 피어싱 같은 장식, 화장이나 향수, 친구들과의 교제, 선택한 직업이나 팬클럽, 정당과 같은 것으로도 만들어진다. 또한 행동도 페르조나에 포함된다. 당신이 누구 편을 들지, 누구와 함께 할지와 같은 부분에서 그 역할이 드러난다. 그러나 페르조나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페르조나는 결코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영혼의 지도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영역을 보여준다.

20 세기의 저명한 영국 시인인 T.S. Eliot 은 모든 고양이는 세 가지 이름, 즉 모든 이들이 아는 이름,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아는 이름, 자신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고양이는 무엇을 하는 중일까? 고양이는 자신만이 아는 이름, 즉 모든 사람으로부터 숨겨진 채 남아 있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우며 유일무이한 이름에 대해 묵상하는 중이다.

인간도 세 가지 이름, 즉 모든 이가 아는 이름인 공공의 페르조나,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만 아는 사적인 페르조나, 오직 자신만 아는 가장 깊은 내면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이름을 알고, 더러는 두 번

째 이름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비밀스러운, 개인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내면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 내면의 이름은 당신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기 전에 당신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그 이름은 당신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이름을 알고 있는가? 아직 모른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보물은 발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내면의 이름을 발견하고 얻는 것 그리고 당신의 페르조나가 당신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건 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아 두는 것이 개성화의 목표이다.

머리 스타인

2019년 4월 12일, 스위스 골디빌에서

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독자에게,

심리학은 나라와 문화의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를 포용한다. 독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던 내가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건 우리의 심리적인 구성과 기능의 본질들은 유사하다.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적인 태도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 구조들과 역동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특별 해져야 하는 필요때문에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동일성을 희생시켜가면서 차이를 강조하는 인간의 자기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인류학이 문화적 차이와 독특성의 세부사항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심리학은 정신의 보편적인 측면들을 연구하고 묘사하려 한다. 이 책 "영혼의 지도"는 우리가 어떻게 같은 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 적용된다. 우리는 같은 지도를 공유한다.

여기서 우리가 써 내려가는 영혼의 지도는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 하나하나에 적용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페르조나"라고 하는 인격의 보편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페르조나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게 된다. 이는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적응방법이다. 페르조나는 장소에 따라 그 색채와 표면적인 모습이 다를지라도, 구조적으로 같으며 어디든 적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

모든 인간이 같으면서도 개별적으로는 독특하다는 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리 깊은 역설은 아니고, 인간의 두가지 다른 층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각각은 사는 집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다. 구조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같으나, 실존적이고 주관적으로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 사촌, 삼촌과 숙모처럼 구조적으로 유전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는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하나의 영혼이다.

영혼의 지도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각각의 개인은 여기 표시된 지도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경험한다. 이 책은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의 부분인 페르조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또한 페르조나가 우리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 한다. 페르조나는 우리가 우리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인 세계에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기능이다. 이것은 겉모습이고 이것 뒤에 훨씬 더 많은 측면들과 양상들을 갖고 있는 복잡한 인격이 존재한다. 이것 전체를 우리는 정

10 영혼의 지도: PERSONA

신이나 영혼이라고 부른다. 어떤 경우 페르조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드러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감추기도 한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페르조나는 한국인인 것이며, 이는 길고도 중요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 문화의 페르조나는 많은 세대를 걸쳐 개선하고 수정한 결과이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변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제한된 시간때문에 관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변화들이 가속화되어 이 변화를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페르조나는 또한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종의 지구촌에서 살며, 요즘의 옷차림과 스타일은 글로벌 이미지에 맞추어져 있다. BTS 를 예로 들면, 서울이나 도쿄에서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잘 들어맞는 글로벌 브랜드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상파울루, 파리의 사람들은 BTS 멤버들의 부드럽고 우아한 페르조나에 감탄한다. 방탄소년단은 특정 문화나 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화된 세상에 아름답게 들어맞는 페르조나를 개발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끈다.

심리학은 사람의 영혼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도움으로써 현대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페르조나보다 크며, 자아, 그림자 그리고 아니마, 그 이

상인 존재이다. 영혼이란 이 모든 부분들 전체를 말한다. 영혼의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서 유사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방법과 그것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삶을 경험하는 방법들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고 유일무이하다.

이 책 "영혼의 지도"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의식상태에 있는 인격을 더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문화와 세상의 다른 부분들에 있는 우리들과의 연대감을 더 의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BTS는 이런 메시지의 중요한 외교관이다.

머리 스타인

2020년 1월 2일, 스위스 골디빌에서

역자 서문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 BTS가 내 책 "영혼의 지도" 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하고 그 곡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 그 곡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라는 이메일을 머리 스타인 선생님께 받게 된 것이 이 번역 작업의 우연한 출발점이 되었다. 스타인 선생님은 이후 융심리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던 자신의 책 "영혼의 지도" 중 페르조나의 내용을 강조하고,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 Persona 앨범에 실린 노래들의 가사를 분석심리학적인 해석을 더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으며, 선생님의 책을 출간한 미국의 스티브 부처의 번역 의뢰가 있어 본격적인 번역을 시작하였다.

공동번역자인 조자현 선생과는 스위스 유학시절 국제분석심리학교 ISAP-ZURICH 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융학파 분석가 수련 기관인 이 학교는 머리 스타인 박사가 초대 교장으로 일하고 현재까지도 깊이 있는 강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미국인이면서도 스위스에서 오래 거주한 스타인 박사는 동양, 특히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 책도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선행 영향력에 큰 인상을 받고 쓰신 것이어서 번역의 현실

적인 어려움과 번역자로서의 부족한 능력에도 이 책의 번역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조자현 선생과 각각 교토와 서울에서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으며 여러 어려움과 부족함에도 번역을 완성할 수 있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융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융심리학 관련 도서들을 출판하는 스티브 부저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 작업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작은 영감을 주고, 그들이 융심리학을 통해 깊고 넓은 자신의 다양한 세계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0년 1월 10일

역자대표 우종태

BTS 의 “영혼의 지도:
페르조나” 앨범의 가사에 대한 주석
머리 스타인의 감상



이 장은 로라 런던이 자신의 팟캐스트("용에 대해 말하다; 용학과 분석가와의 인터뷰"라는 44 번째 에피소드)에서 머리 스타인 박사와 대담한 것을 각색해서 실었다.

“영혼의 지도: 페르조나” 앨범에는 일곱 개의 노래가 있다. 나는 각각의 노래 가사를 논평하고, 각 가사들을 관통하는 주제와 맥락을 추적해 보려 한다. 첫 번째 노래부터 일곱 번째 노래를 가로지르는 일종의 발달의 노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번역된 가사로 작업하기 때문에, 원래 언어에 있는 미묘한 뉘앙스들을 일부 놓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이 앨범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앨범의 제목은 “영

혼의 지도: 페르조나"이다. 페르조나라는 용어는 융학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이 앨범이 수백만 장이나 팔린 이후에 페르조나라는 용어는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주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페르조나는 무대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페르조나를 다룰 때에는 언제나 연극을 한다는 암시가 있다.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모두 배우이며, 몇몇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극에 능하다. 그러나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들조차도 겉질에서 나와 세상을 마주할 때는 페르조나를 가진다. 그래서 가면 혹은 페르조나는 우리 자신, 우리 주체와 사회, 우리를 둘러싼 집단적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BTS가 만든 시리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페르조나가 몇 개 시리즈의 첫 앨범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많을지는 몰라도, 세 개 혹은 네 개의 앨범이 청중을 인간 정신의 많은 측면과 복잡성으로 인도하기를 희망한다. BTS는 인간의 이런 성격의 측면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기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만약 교사나 의사, 소방관이라면 집에서 자녀와 놀아 주거나 이웃이나 부모와 이야기할 때와는 다른, 직업적인 일을 할 때의 페르조나를 갖게 된다. 이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얼굴과 측면들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BTS의 비디오를 들여다보면서 BTS를 이해한 방식은 일곱 명의 젊은이가 하나의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다. 그들 중 몇은 더 진지하고, 몇은 더 유쾌하고, 몇은 다른 멤버들보다 더 귀엽다. RM이 첫 노래를 부르며 평생 가져왔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다른 여섯 멤버는 그를 둘러싸고 춤을 춘다. 그들은 RM의 다른 측면들이다. RM은 목소리이지만, 여섯 멤버는 인격의 다른 얼굴들이다. 이 노래들은 다른 측면들과 페르조나를 가진 단일한 인격의 표현이다.

이 노래들은 진정성의 갈구와 이를 위한 투쟁을 나타낸다. 이 인격이 무언가를 말하려 투쟁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을 느낀다. 이는 절망 뿐 아니라 사랑, 희망, 비전의 노래들이다. 유명인이라는 강렬한 감정과, 그것이 가져오는 팽창과 자기 의심의 문제도 있다. 고요한 장소와 진리의 추구도 있다. 그것은 통렬하다. 자신의 위대한 재능과 필요의 전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명성이라는 덕목이 그의 삶에서 야기한 문제들과 씨름하는 그의 인격이 느껴진다. 유

명세라는 것은 야망을 충족시키지만, 때로는 공허한 감정을 남긴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이미지, 이것 혹은 저것이 되라는 요구, 변화하라는 압박과 씨름하고 있다. 이들이 고국인 한국에서 세계의 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말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 같은 압박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압박에 진정으로 마주하는 것을 상상해 본다. 몇몇 작사가들이 이 앨범에 참여했다. 가수들은 작사가들이 입에 넣어주는 모든 것에 동의할까? 아마도 몇 가지는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무대 위의 공연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접근해 보려 한다.

어떤 종류의 퍼포먼스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청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마음을 끄는 일인데, BTS는 이에 아주 능하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한다. 많은 점검과 자기 평가, 가면 뒤의 모습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를 즐겁게 해 줄 때에도 무대 위에서 고해를 한다. 그것이 바로 이토록 흥미진진한 이유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신나는 페르조나를 보여주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배경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첫 번째 곡, 인트로: 페르조나

첫 번째 곡은 RM의 '인트로: 페르조나'라는 제목의 곡이다. 이 곡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는 그림자 측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RM은 그의 불안을 숨기는 것에 대해 노래하는데, 이것이 그를 망설이게 만든다. 그러나 다음에 RM은 그의 망설임과 친해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순응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을 멈추지 않게 하면서도 인정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감정을 붙잡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나중에 그가 술 취했을 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미성숙함에 대해, 우리가 이 미성숙함을 어떻게 숨기려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종종 우리가 그러한 시기에 숨기려 하는 불충분함이나 어리석음에 대한 감각이다. RM의 페르조나 가면은 그가 젊음에 수반되는 미성숙함을 숨기려 할 때, 그를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RM의 가사는 어떻게 그가 불충분한지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전보다 다소 높은 지위(사업, 학문 혹은 전문적인 위치 등)로 떠밀리는 경우에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그들은 속임수로 그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할 능력이 안 되므로 허세를 부려 성공적으로

넘겨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많은 전문직 사람들이 거 짓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RM 이 자신의 미숙함을 숨기는 것에 대해 노래할 때와 비슷하다. RM 은 무대에서 훌륭하게 공연을 하면서도, 그가 다룰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그것이 가면이 숨기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RM 은 말한다. “그때마다 날 또 일으켜 세운 것.”

이 말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일종의 종교적 예민함 혹은 감수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 구절은 거의 성서에 나오는 말 같다. “그가 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기’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기’는 여러분의 핵심이다. ‘자기’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로부터, 혹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누구였는지’ 이자 정신의 궁극적인 자원이다. 여러분이 우울할 때, 이런 종류의 에너지나 영감의 원천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다른 기회와 새로운 날을 제공할 것이다. 이 주제는 그들의 많은 노래에 나타난다.

이 첫 번째 노래 후반에, RM 은 “Where’s your soul?”, “Where’s your dream?”이라고 외친다. 그리고는 “My name is R”,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라고 선언한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나”라는 외침은 중년의 용이 <레드북>을 쓸 때의 경험의 메아리이다. <레드북>은 용이 탈고한 지 약 100년이 지난 2009년에 출간되었다. 흥미롭게도 <레드북>은 이 노래처럼 용이 “내 영혼은 어디에 있나? 내 꿈은 어디에 있나?”라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용은 BTS의 노래에도 나오는 사막에 있는 이미지들로 뛰어든다. 영혼의 대답 전에 사막에 있는 것이다. 영혼이 사막에서 그에게 나타날 때, 처음에는 목소리로, 다음에는 용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에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나는 첫 번째 곡이 “어디에 있니?”라며 영혼을 외쳐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여기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곡에 그에 대한 대답이 있다. 영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영혼의 상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젊은 여성, 할시(애슐리 프랜지파니)가 보컬로 참여한다. 뮤직비디오 첫 부분에서, 할시는 매표소 안에 있다가, 누군가 부

르는 것을 알아차린다. 할시는 매표소를 닫고는 사라진다. 그리고는 BTS 일곱 멤버들이 무대에서 노래의 첫 부분을 부르는 모습이 나온다. 할시는 곡 도중에, 나중에 합류한다.

누군가 BTS 가 왜 미국 여성이 이 역할을 하게 선택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부분이 아주 감정적이고 통합적이라 여긴다. BTS 는 국제화되었다. BTS 는 2019 년에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 그들은 국제사회로 뺏어 나간다. 영혼의 상, 우리가 아니마 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기 고향의 문화와는 사뭇 다른 문화의 상이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미국 여성은 아니마의 투사를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BTS 는 미국 여성에게 그들의 무의식적인 아니마를 투사하고 그들의 영혼의 상을 발견한다.

유럽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상을 중동, 인도 혹은 중국 등 이국적인 문화에 투사해왔다.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융의 친구인 볼프강 파울리는 그의 아니마 상을 중국인으로 묘사했다. 파울리는 그녀의 꿈을 몇 차례 꾸었다. 파울리가 사랑에 빠졌던 실제 중국 여성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그녀는 그의 인격에 있는 무의식적 아니마를 나타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할시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적 아니마이고 이제 부름에 대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할시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22 영혼의 지도: PERSONA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 곡에서 RM은 “Where’s your soul?”이라고 노래한다. 두 번째 곡에서, 자, 보라, 그녀가 나타난다.

영어 제목은 Boy with Luv이다. 사랑과 함께하는 소년(boy with love)과 사랑에 빠진 소년(boy in love)은 너무나도 다르다. 당신이 사랑에 빠진다면, 당신은 감정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당신은 속수무책이다. 당신의 자아는 감정의 노예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종류의 미친 짓들을 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사랑과 함께한다면, 당신은 자제력을 훨씬 더 발휘하게 된다. 당신은 사랑과 함께(with it)이지 사랑 속에(in it) 있지 않다. 당신은 사랑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당신이 눈길을 주는 사람, 당신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당신의 사랑을 가져간다. 이러한 태도는 더 성숙한 자아의 위상을 필요로 한다. 미성숙한 자아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것이다. 더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과 함께하는 상태는 조종하려는 입장이 훨씬 덜하며, 심리적으로 훨씬 더 발달된 상태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제시하는 이 인격이 사랑에 빠진 이전의 상태에서 사랑과 함께하는 상태로 상당히 진전했다고 생각한다. 이 곡은 가사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노래이다. 이 노래는 사랑의 건강한 힘을 찬미한다. 이것은 당신을 탈바꿈시킨다. 이것은 당신을 고귀하게 만든다. 하지만 위험, 말하자면 이카루스의 날개 또한 가지고 있다. 그들은 노래한다.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로 너무 높이 날아올라 타버리고 만다. 이카루스는 팽창되어서 너무 높이 날아오른다. 이 곡에서, 이런 인격은 진전을 보인다. 그는 고양되고 다소 팽창되지만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니며,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사랑이 그를 추락시키고, 불태우고, 아마도 그와 연인 둘 다를 파멸시키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이 아니라 그의 연인에게 향하게 한다는 것 즉 그가 사랑과 함께한다는 것은 개성화의 관점에서 아주 좋은 신호이다.

용학파의 렌즈로 보면, 여기에는 많은 개성화의 순간들이 있다. 첫째로 그는 “내 영혼은 어디 있나?”라고 외친다. 그리고 영혼이 등장한다. 다음에 사랑과 함께하고, 사랑과 함께 그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는 기여할 수 있다. 그는 연인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가치가 있거나 타당한 것이라면 어떤 것에건 사랑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곡, 소우주

인간이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라고 하는 건 오래된 관념이다. 대우주는 우주이고, 전체 세상이며, 세계이다. 우주는 당신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것의 전체이다. 소우주는 내면 세계이다. 내면 세계는 우주, 즉 외부 세계를 반영한다.

융은 병석에 있던 말년에, “나는 아픈 중에 환상적인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물웅덩이에 있는 별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우주인 무의식의 웅덩이에 비친 소우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나에게 큰 행복감을 주었다.”(융, <회상 꿈 그리고 사상>, 1989)라고 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대우주를 반영하는 소우주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방대한 우주, 복잡성, 풍요로움과 다양성의 감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내면 세계이다. 내면 세계는 전부가 의식적인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이지만, 융학파가 개발한 적극적 상상이나 꿈 작업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소우주라는 노래에서는 우주의 별들이 자주 언급된다. 이것은 당신이 바깥 세계에 좌우되지 않는 별들과 연결된 내면의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이다. 당신이 페르조나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반영해주는 당신의 가치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이 주지 않는 자기감은 갖지 못한다. 이제, 우주를 반영하는 내면의 소유주에 대한 감각으로, 당신은 별에 연결된다. 당신은 다른 이들의 반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오는 자존감을 갖는다.

그래서 이 인격은 타인에 의해 사랑받고, 반영되고, 존중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페르조나 요구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런 인격은 페르조나 동일시와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에서 빛난다.

이것은 17세기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철학, '우리가 모두 모나드 monad'라는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각자는 자기 안에 동봉된 모나드인데, 우주의 다른 모든 모나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인격은 완전한 개체이지만 다른 개체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그들은 70억 개의 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는 또한 세계 인구수이기도 하다. 각각의 모나드는 별이다. 하나 하나는 개인이다. 각각은 영혼을 갖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라이프니츠가 조화라고 말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모나드들은 모든 독립적인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이라 불리는

다른 힘에 의해 조화를 이루며, 각각은 그 자신의 무게중심을 가진다.

이 노래는 자기(the Self)를 잠깐 들여다보는 것에 관한 노래이고, 우리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우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느낌에 대해 일견하는 것에 관한 노래이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전체에 속해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고 죽으면 돌아가야 하는 개인의 별,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용이 <레드북>에서 말한 영지주의 철학이다. 우리가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 운명은 우리가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우리의 별이고, 우리는 그동안 별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러한 자기 인식으로의 돌파구로 이해한다. 일곱 청년들이 제시하는 이 인격은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한다.

네 번째 곡, Make It Right

네 번째 곡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발견하기 위한 내면으로의 여정을 구현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는 “널 찾기 위해 노래해” 라고 외친다. 그러나 누가 ‘너’인가? 그가 말

하는 너는 다소 모호하다. 그의 여자 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단지 그것 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노래에 나오는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놀라운 것은 “네게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라는 생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는 분투하고 있다. 그는 내면으로 여행하는 중이다. 노래는 이어진다. “내 여정의 답인 걸. 널 찾기 위해 노래해. Baby to you.”

나는 내적, 외적 요소들에 대해 논평해 보고자 한다. 영혼이라는 것이 내면의 어떤 것일까, 외부의 어떤 것일까? 아니면 둘의 어떤 조합일까?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 특히 20 대의 BTS 같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투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투사는 당신이 연인과 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혼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연인과 관계 맺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그토록 중대해지는 이유이다. 그 또는 그녀는 당신의 영혼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과 밖이 섞이고, 함께 혼합된다.

그래서 그가 “Baby to you”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해,

편집자의 영혼의 지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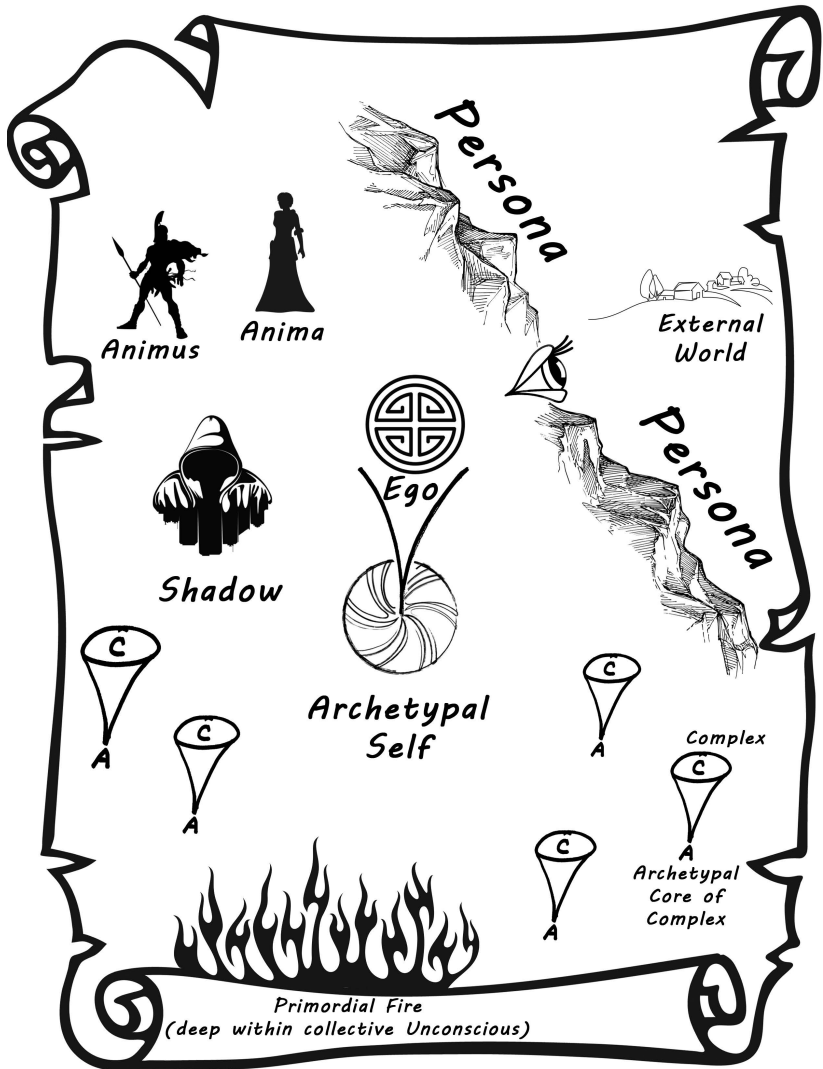


용 심리학의 자원들을 발견하는 데 흥미가 있는 새로운 젊은 청중들을 위해 영혼 내부의 지도에 대한 스타인 박사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을 같이 써보자고 스타인 박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흥분하면서도 동시에 위축되었다. 페르조나에 대한 생각과 내적인 세계의 심리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요즘의 문화에서는 관심이 많다. 사실, 그런 관심이 너무나 강해서, 한국의 슈퍼스타 팝밴드 BTS가 스타인 박사의 개념을 가져다 최근의 앨범, “영혼의 지도: 페르조나”의 타이틀과 가사들로 엮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에너지와 관심의 폭증은 BTS 멤버들의 엄청난 창의성과 그들의 거대한 팬 층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우리

영혼의 심층에서 원시적인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집단 무의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이러한 에너지의 일부를 짧게나마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영혼의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과 이미지도 선별했다. 영혼처럼 한계가 없고 덧없는 영역의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실패하게 마련이지만,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우리는 작가와 편집자가 하는 일이라는 진지함을 갖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올라타려 한다. 니체가 제안했듯, 이는 아모르 파티(Amor fati)의 문제, 말하자면 영원히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 소개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 영혼의 내적인 작용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그려 볼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년간의 정신과 수련에 기반하여 하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카를 융의 심리학을 따르는 이들과 같은 여정에 있는 동반자 입장에서 시도하려고 한다. 묘사할 수 없는 채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묘사해 보려 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인내가 요구된다.

지/도



40 영혼의 지도: PERSONA

그림의 설명

Persona 페르조나

External World 외부 세계

Anima/Animus 아니마/아니무스

Shadow 그림자

Ego 자아

Archetypal Self 원형적 자기

Complex 콤플렉스

Archetypal Core of Complex 콤플렉스의 원형적 핵심

Primordial Fire(deep within collective Unconscious) 원초적 불꽃(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 존재)

일러스트. 스티븐 부저

우리의 지도는 중심 지점, 즉 실제로는 두 중심 지점인 자아와 원형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다. 원형적 자기는 우리 자아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이런 견해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가 이를 통해 원형적인 자기로 통하는 갈때기 같은 원뿔 구조로 묘사했다.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다.

이 지도에는 우측 상단 모퉁이에 마을을 내다보는 큰 눈이 있다. 실제로 눈은 온 세상을 향해 밖을 응시하며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들의 전체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처럼, 우리의 자아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지도의 눈은 페르조나에 해당하는 산맥의 꼭대기에 있다. 페

르조나 산맥은 자아와 주위의 세계 사이에 있다. 높은 산맥이 그 너머의 전망을 막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페르조나를 넘어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페르조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얼굴이기에 아마도 가면으로 부르는 게 나을 것이다.

산맥 저 왼편에는 그림자가 있고, 산들의 중간에 자아가 있는데, 그림자는 두건을 쓴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자아의 관점에서 산 같은 페르조나 바로 건너편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 그림자가 바로 페르조나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페르조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긍정적 얼굴이 무엇이든, 더 어둡고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의 그림자에 만들어진다. 그림자는 원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정신의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다. 우리는 그림자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깊숙이 묻어두려 한다. 그리하여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지도 왼편 상단, 여전히 무의식의 영역에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 영혼의 반대 성을 가진 무의식의 인물이다. 남성적인 인물은 이 지도에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 옆에 여성적인 인물이 있다. 전통적인 융학파의 관점에서 남성은 자신의 무의식의 더 깊은 층들과 연결해 주는 여성적인 아니마

를, 여성은 자신의 무의식의 깊은 곳과 연결해 주는 남성적인 아니무스를 갖는다.

“C” 자가 가운데에 있고, 깔때기 모양으로 좁아져 A 로 연결되는 많은 타원 모양들이 무의식 도처에 흩어져 있다. 이것들은 그 핵심에 원형 Archetype(“A”)을 포함하는 콤플렉스(Complexes)들이다. 이것들은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의 바닥 쪽에, 우리는 원초적 불의 불꽃들을 그려 놓았다. 이 이미지는 집단 무의식들이 지도 전체에 놓여 있음을 상기시킨다. 강력한 상징이나 공포, 영감들이 점차 드러날 때, 원초적인 힘이 자리잡는 곳이다.

외부 세계



외부 세계는 지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외부 세계는 우리의 세계, 우리가 우주라고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해당한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또한 사람과 사물, 다른 생명체들을 포함해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이다. 외부 세계가 이 지도에 있는 까닭은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적 경험에 대조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 경험은 우리가 보통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인 무의식 안의 더 깊은 요소들을 탐색해 갈수록,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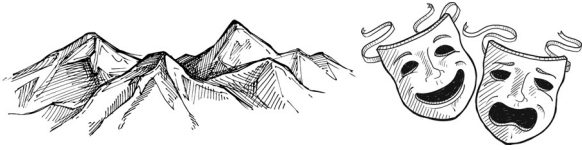
자아



자아는 무의식의 표면에 기대고, 의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자아는 말하는 '나'이며 내가 나에게 대해 묵상할 때 내가 의식하는 것이다.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 경계에 놓인다. 자아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나 자신의 '나'이다. 이는 운영하고 포함하며 행동하고,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고, 기질과 성격과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한다. 자아는 우리 신체에서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억, 트라우마, 감정, 사실들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섬광과 같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경우, 이는 종종 무의식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인식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이다.

페르조나



페르조나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를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가면이나 산맥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걸 강조하기 위해 눈 하나를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에 첨가해 두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주위 세계를 인식하며, 이는 바라보는 눈을 통해 제시된다. 세상은 우리의 페르조나를 본다. 따라서 지도에서 친구와 가족 그리고 누구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대해 의견을 가진다면, 그들은 우리 자아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게끔 허용한 가면인 페르조나를 보는 것이다.

그들은 페르조나의 산과 같은 외부를 본다. 그들은 진정한 우리를 결코 보지 못하며 다만 페르조나가 허용한 부분만을 본다. 페르조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의사라면, 직장에서 나는 아마 흰 가운을 입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의사의 일부분을 입는다. 나는 '의사 말투'라는 의사들에게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나는 전문가처럼 들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와 다른 이들

에게 내 입장을 납득시키는 어려운 말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즉흥적으로 웃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내가 다른 가면이나 페르조나의 측면들을 내보일 때는 가능한 한 야단법석을 떨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나를 일관되고 학식 있는 전문적인 의사로 봄으로써 안심할 수 있다면 적응적일 수 있다. 내 일에서의 페르조나는 내가 내 역할에서 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서 내가 의사 페르조나를 벗고 배우자 페르조나를 입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나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지시하고, 장황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내 방식대로 일들이 처리되기를 고집하는 등의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집에서는 의사 페르조나와 동일시된 내 페르조나의 측면들이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다. 사실 부적응적인 것이다. 집에서는 배우자 페르조나나 아버지 페르조나를 입는 게 낫다. 이러한 페르조나들로 인해 나는 덜 직업적이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된다. 나는 웃고 농담을 하고 아이들과 바닥을 구를 수 있다. 학생, 친구, 멘토와 멘티, 운동선수, 파티 참석자, 록 스타, 사회운동가 등등을 포함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생의 과정에서 걸치는 셀 수 없는 페르조나의 배열이 존재한다.

그림자



그림자는 페르조나와 반대되는 이미지, 페르조나의 정반대이다. 우리가 페르조나를 통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보여 줄지 시도하는 모든 측면에, 우리 인격의 반대 부분은 분열되고 그림자에 저장된다. 내 페르조나가 다정하고 기꺼이 돕고 용기를 주는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면, 쌀쌀맞고 선뜻 도우려 하지 않고 낙담시키는 정반대의 성향이 분열되어 내 무의식적 그림자에 침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의 강도는 페르조나가 얼마나 강하고 일방적인지에 정비례하여 증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페르조나를 극도로 정의롭고 경건하며 어떤 분노나 부정적 경향도 없이 헌신적인 사람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마도 똑같이 활발하고 강력하지만 정반대의 특징들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강력한 잔혹함, 비도덕적이고 당치 않은 특성을 가진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만들고 있을 공산이 크다. 뉴스를 보면 그들이 죄악으로 여기는 행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말을 하고는 창피스럽게도 바로 그 행동에 갇혀 버린 경건한 설교자들이 엄청 많다. 일례로, 그들의 페르조나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 정력적이고 비도덕적이 된다는 뜻이다.

종종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자가 분출해서 대중 앞에 드러나기 전까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굴욕적이지만, 만일 적절하게 다루어 진다면 새롭고 더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림자의 내용물들은 숨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그림자를 모르는 상태로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그림자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다루는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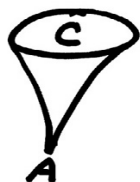
우리의 무의식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도외시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묻혀 있다. 카를 융이 이러한 이론을 만든 100년 전에는 사회 안에서 성이 더 엄격하게 정의되었다. 빅토리아 시

대에는 남자가 자신의 여성적인 부분을, 여성이 남성적인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거의 용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의 남성적인 특성만을 포함한 삶을 겪은 남성은 용이 아니마라고 부른 정신이 발달되지 못하고 무의식적인 여성적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냈다. 남성이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하며 더 창조적인 측면과 연결될 수 있으려면 아니마를 통해야 한다. 그가 울거나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머리보다 가슴으로 움직일 때, 그는 필시 그의 아니마와 연결되는 중일 것이다. 이 아니마는 꿈에서 관능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여성으로 그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의 인격 안의 더 깊은 장소로 그를 데려가는 가이드이다. 그녀는 미래의 도래를 알리며, 새로운 생명을 수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정체성에 있어서 정반대의 발달을 가졌었다. 여성들은 힘든 경력을 따르도록 거의 권장되지 않았고, 권력이나 권위 등 공공의 역할을 거의 추구하지 않았다. 용이 아니무스라고 불렀던 힘과 결단, 전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인격, 무의식적인 남성적 모습은 전형적으로 숨어 살았다. 꿈에서 이런 모습은 종종 여성에게 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생 후반기에 여성은 과도하게 보살피는 역할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 강하고 공적인 인격을 가지고 두 번째 경력을 발달시킬지 모른다. 이런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회 내에서 성이 더 유동적으로 바뀔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표현의 자유를 더 누리도록 허락된 것과 같이, 더 이상 전적으로 남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성별 요소로 기울어지건 간에 반대의 성은 우리의 아니마/아니무스 내에 무의식적인 힘을 생기게 한다. 이런 반대 성별의 특성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더 전체적이고 완전할 수 있게 되도록 한다.

콤플렉스



수많은 콤플렉스가 지도의 무의식 영역 도처에 흩어져 있다. 우리는 콤플렉스들을 A 라는 글자로 모이는 타원 내의 "C"라는 글자로 상징화한 바 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수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콤플렉스는 종종 트라우마와 같이 우리 삶의 특정한 영역이나 유발인자 주변에 모이는 그 자신만의 격앙된 감정의 세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분 인격이다. 여러분은 모성 콤플렉스, 부성 콤플렉스, 돈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영웅 콤플렉스, 나폴레옹 콤플렉스, 피터 팬 콤플

렉스, 애인 콤플렉스 등등 혼한 콤플렉스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콤플렉스의 제목을 듣는 것만으로도 콤플렉스가 포함하는 꽤 많은 것을 상기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돈 콤플렉스에 짝 붙잡힌 사람은 가난과 재정적인 필요를 비이성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공포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많이 저축하도록 몰아간다. 이를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인물에 빗대 스크루지 콤플렉스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영웅 콤플렉스와 투쟁하는 사람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비이성적으로 끌릴지도 모른다. 콤플렉스가 더 강할수록, 그 상황에 빠져들 때 콤플렉스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행동은 더 많이 콤플렉스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우리 친구들과 가족, 연인은 우리가 우리 행동을 비이성적으로 변호하려 할 때 조차도 언제 우리가 이런 콤플렉스의 손아귀에 놓이는지를 알고 있다.

융 심리학의 특별한 점은 모든 콤플렉스의 중심부에 지도에서 A로 언급한, 원형(archetype)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영웅 콤플렉스의 심장부에는 영웅의 원형이 놓여 있다. 이러한 원형은 역사를 통틀어 알려진 영웅 이미지 안에 존재하고, 인류에게 드러난 모든 영웅적 특징들을 포함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가 이 콤플렉스의 심장부에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영웅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강렬한 에너지이다. 콤플렉스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이러한 순간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감탄할 만한 행동을 낳게 되기도 한다.

원형적 자기



융 심리학의 체계 안에서, 자아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콤플렉스이다. 모든 콤플렉스의 중심부에는 원형이 자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자아 콤플렉스 중심부에도 원형적인 자기가 놓인다. 관습적으로 기독교 문헌에서 신을 나타낼 때 대문자를 쓰는 것(God & He / His / Him)과 유사하게 전체성과 신성함의 요소들을 언급하기 위해 '자기'를 대문자를 사용하여 the Self 라고 쓴다. 자기는 개인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조직 원리이다. 많은 사람이 원형적인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만, 이를 더 높은 힘(능력자)과 같은 관용구와 같이 종종 연상하는 무한하고 끝없는 가능성을 가진 신과 같은 것, 혹은 우주 안

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요소들의 합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는 알파이자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하나로 합쳐진 전체성이자 단일성을 말한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거창한 비유들을 사용하지 않고 원형적 자기에 대해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형언할 수 없고 단어들은 이것을 담아내지 못한다.

원초적 불



우리는 이러한 구조물 기저에 있는 심오한 원형적 힘들을 보여주기 위해 지도의 밑바닥에 원초적 불을 추가해 두었다. 원

초적 불은 정신적 에너지와 인간과 우주의 역사에 걸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의 초기 근원을 나타낸다. 이것은 생존, 진화, 창의성 그리고 성욕과 배고픔 같은 본능들의 추진력이 된다. 우울할 때는 원초적 불과의 접촉을 잃게 된다. 반면, 조증 상태일 때는 그 불꽃들에 휩싸이게 된다. 때로는 세계대전 동안 혹은 극심한 갈등이나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불은 세상 전체를 감싼다. 불은 정신 속에 깊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극심한 시기에는 분출하면서 지구의 지각 아래에서 용암처럼 흐른다.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타오르는 집단적 불길이다. 빌리 조엘의 잊을 수 없는 노랫말,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 그건 세계가 돌 때부터 항상 불타고 있었지.”는 이 멈추지 않는 불꽃들의 비유들을 강력하게 담아낸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지도이다. 더 깊이 페르조나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장려를 하려 한다.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수칙

세상이 당신을 규정짓게 두지 마라. 당신 자신의 길을 열어라!

이것은 특히 젊은이에게 힘든 명제다. 어린 시절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뛰어나게 잘해야 하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하며, 인생의 동반자를 발견해야 하며, 아이를 기르는 것 등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모든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들 중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 이런 기대들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겨 지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도 한다.

젊은이가 상당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찾을 때, 부모나 친구, 선생님과 멘토들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갖춘 조건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지도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자기가 구축하는 페르조나가 진정성을 포함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우리 그림자의 흥포함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콤플렉스에 걸려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아니마/아니무스의 영감에 다가가야 한다. 이런 전체성,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아우름으로써 만 우리의 고유한 길을 알아보고 진정한 자기를 따르기를 희망할 수 있다.

밤의 꿈에 귀 기울이라. 꿈 일기를 써라.

융 심리학의 핵심 원리는 자는 동안 꾸는 꿈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꿈은 집단 무의식에서 솟아오르고 원형적 자기에 의해 형성된다. 모든 꿈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알아야 할 무언가를 말해준다. 밤시간의 꿈들을 일기장에 적어 보라.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스스로에게 꿈의 다양한 요소들이 무엇을 상기시키는지를 질문해 보자. 어려운 작업을 다른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꿈 상징사전"을 간단히 이용하는 것을 피하라. 가능하다면, 융학과 분석가나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꿈을 가

지고 작업하는 치료자와 작업하라. 판단하려 하지않고,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꿈을 나누고 깊게 생각하는 꿈 그룹에 참여하거나 그룹을 시작하라. 당신 자신의 맞춤형 영혼의 지도를 개발하는 데 당신의 꿈들을 사용하라.

낮 시간의 꿈에 귀를 기울여라. 주간 일기를 써라.

어떤 생각, 감정, 창조적 충동, 영감을 기록하는 주간 일기를 쓰는 것을 고려하라. 그림자상, 아니마 상, 야간의 꿈에 나온 등장인물들을 포함한 당신의 다른 부분들과의 대화를 써볼 수도 있다. 질문을 하여 당신 내면을 알아 가라. 현재를 궁금해하고 미래를 꿈꾸라.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 자신의 모든 요소에 대해 계속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호기심이 당신을 성장의 길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당신의 어두운 부분(그림자)을 계속 인식하라.
어둠이 깊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이용하라.*

불행히도, 종종 어두운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드는 흔한 덫이다. 우리는 자기 내면의 어둠을 길들였다고 확신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 후에 어두운 부분이 다시 나타나게 할 뿐이다. 어둠이 분출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파멸시킨다.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상하게 하는 편견, 고정관념, 오만한 태도들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항상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라. 그림자와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영화가 화면에 투영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들에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관찰하라. 당신의 어두운 부분이 자기를 점거하고 후회스러운 짓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성장과 개성화는 어두운 자기를 계속 인식하고, 덜 매력적인 자질을 기꺼이 직면하려 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으라.

당신의 머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몸과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덫을 피하라. 이것이 많은 융학파 사

람들과 지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빠져드는 덧이다. 관념이나 개념, 원형들이 어떻게 물질적인 세계에서 스스로를 구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개별적으로만 들여다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라. 몸이 아프거나 투덜덜 때, 그 속에 묻혀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몸이 완전히 멋대로 춤추거나 뛰고, 놀고 싶어 할 때는 당신의 몸을 즐겨라.

그게 무엇이든 계속 창조성을 지니고 그걸 표현하라.

어떠한 형태든 당신의 영혼에 생기를 주는 창조성과 소통해야 한다. 표현에는 캔버스의 그림과 같은 예술 작업 뿐 아니라 춤, 산문, 점토 조형, 음악 연구, 목소리 사용하기와 그 밖에 수많은 다른 표현이 포함된다. 창조성은 우리의 성장과 개성화에 연료를 공급하는 원초적 에너지를 건강하게 자극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당신의 인격의 구성, 강점과 도전 과제를 알아.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당신의 인격이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을 강하게 하는지 계속 궁금해하라. 카를 융의 내향, 외향, 사고, 감정, 직관 등의 개념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사귀는 방식을 알면, 우리 행동도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게 사귀는 방법도 알기 쉬워진다.

인생의 포물선과, 청년, 중년, 노년은 각각 다른 소명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본인이 생의 어떤 항로에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정신의 전형적인 구조물들인 성격, 소망, 관계 그리고 직업들을 형성한다.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에 차서 그렇게 한다. 이런 구조물들을 다 만든 중년이 되면 아마도 생산적인 경력, 자라나는 가족, 다른 도전들에 더 몰두할지도 모른다. 종종 중년기에, 중요한 항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것을 경청해야 한다. 노년기가 되면 어떤 영역들에서는 쇠퇴하고 어떤 영역들에서는 깊어지는, 인생의 포물선의 반대편에 있게 된다. 전형적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한다. 종종 더 영적이고 더 고귀한 실재와의 내적 연결을 키운다. 각

자가 이러한 전형적인 양식들 속에서 자신만의 표현들을 찾아야 할 때는, 지도가 우리 인생 여정의 단계에 따라 나름대로 유용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스로에게 진실하라.

마지막 격려는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해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한다! 이게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가? 물론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탐색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이 인류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유산을 주장하면서, 타인이 당신을 집어넣으려 하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길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조용하고 속삭이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야 한다

스티븐 부저

레너드 크루즈

카이론 출판사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제 1 장

생각의 발단

머리 스타인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은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였다. 자신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자신만의 상당히 다른 이론을 만들고,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는 많은 책과 논문들을 출간했다. 이것들을 모아 18 권의 융 전집이 출간되었다. 이전의 내 책, <융의 영혼의 지도>는 융의 작업과 융의 글들에서 융이 펼친 개념들에 대한 입문서였다.

나는 24 세 때 융의 개념들을 공부하기 시작해 계속 함께해 왔다. <회상, 꿈, 그리고 사상>은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다. 융의 작업들은 내가 1968 년 처음 발견했을 때, 흥미진진하고 영감을 주었다. 나는 개업한 융학파 분석가이고 융의 생각들을 내 클라

이언트들과 매일 사용한다. 융의 개념들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융은 정신에 있어서 천재였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능하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은 탁월하다. 융의 생각들은 실용적이며, 사람들이 더 충만하고 창의적이며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돕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